

기대 한몸에 받고 시작한 '라이프', 아쉬운 종영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의 신작으로 주목받았던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전개로 이쉽게 종영했다. JTBC '라이프' (극본 이수연, 연출 홍종찬·임현욱, 제작 씨그널엔터테인먼트 그룹·AM 스튜디오)는 11일 마지막 회를 방송했다. '라이프'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항원항체 반응처럼 지켜보는 자와 바꾸려는 자의 신념이 병원 안 여러 군상 속에서 충돌하는 의학드라마다. 상국대학병원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수익을 중시할 것인지, 생명을 중시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회에서는 상국대학병원

너무 많은 이야기 담아 내려다 중심 못잡아

의료진이 화정그룹에 맞서 민영화를 막아냈다. 상국대학병원 총괄사장 구승효(조승우 분)는 화정그룹 조남형(정문성 분)에게 찾아가 민영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장직 작위해제였다. 구승효의 전략으로 조남형은 민영화 계획을 멈췄지만, 구승효가 떠난 후에도 상국대학병원에 대한 화정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상국대학병원 의료진에게는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과 끊임없이 대항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라이프' 마지막 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승효와 이노을(원진아 분)의 러브라인이었다. 이노을은 구승효에게 진심을 고백한 후 강릉 병원으로 떠났고, 구승효는 다시 이노을을 찾아 두 사람의 재회가 나타난 것이다. 또, 예진우(이동욱 분)와 예진우(이규형 분)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 다소 뜬금 없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 사람도, 완벽하게 몸을 사리지도 않았다. 조승우, 이동욱, 원진아, 이규형, 유재명, 문소리, 문성근, 천호진, 열매, 태인호, 이상희 등 배우들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훌륭한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라이프'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한 나머지 끝까지 중심을 잡지는 못했다. 우선 드라마 안에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구승효와 예진우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다. 구승효에 이입하는 시청자 반응이 더 컸던 이유다. 가장 원성을 많이 들은 것은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지지 않은 러브라인이었다. 극이 풀려나가는 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이노을은 구승효와 연인인 듯 연인 미묘한 관계를 형성했다. 병원 취재를 위해 만난 예진우와 새끼의 최서현(최유화 분)의 로맨스 역시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다. 한편 '라이프' 마지막 회 시청률은 5.6%(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수도권 가구 기준 시청률은 6.8%로 자체 최고 기록이었다.

금요일 11시 예능 '혈전', 마지막 승자는 누구?



워너원, 아이즈원 등을 배출하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던 '프로듀스' 시리즈로 금요일 예능계 강자 자리를 다시 한 번 굳혔다. 채널A의 효자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리즈 역시 두 시즌에 걸쳐 금요일 오후 11시대 편성을 이어오며 예능가를 떨쳐주는 강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지난 6월 종영했던 채널A '하트시그널'은 방송 내내 화제성 1위 자리를 지키며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면서 동 시간대 예능 최강자 자리를 지켜오던 MBC '나 혼자 산다'를 위협했다. 2013년 3월 첫 시작 이후 꾸준히 팬층을 형성해오며 금요일 11시 대표 예능이 된 MBC '나 혼자 산다'는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도 시청률 12.0%(전국 기준 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나 혼자 산다'는 존재만으로 타 방송사의 동 시간대 예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압도적인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몸집이 큰 예능들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해당 시간대에서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의 이탈 역시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 2016년 8월 첫 편성 당시 금요일 오후 11시대 블록에 안착했던 SBS '비운의 우리 세끼'는 이듬해인 2017년 4월 일요일로 편성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시청률 고공 행진에 날개를 달았으며, 지난 1월 금요일 오후 11시 20분에 편성되며 시작을 알렸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역시 최근 수요일 심야로 시간대를 변경하며 인기를 이어오는 중이다. tvN 금요일 예능으로 방송되던 '신서유기'의 새 시즌 '신서유기5'는 이번 시즌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 오후 10시 40분에 첫 방송을 알렸다. '신서유기5'의 일요일 편성은 금요일 예능의 포화에 대한 부담이 아닌 tvN의 불금 시리즈 블록 신설로 '빅 포레스트'가 방송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재 금요일 오후 11시를 책임지고 있는 '빅 포레스트' 역시 제작발표회 당시 해당 시간대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며 쉽지 않은 도전임을 언급했을 정도로, 금요일 해당 시간대에 대한 방송사들의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일 무려 세 편의 예능이 금요일 오후 11시 경쟁에 도전장을 던졌다. Mnet '쇼미더머니 777(트리플세븐)', SBS '쏟아져 막자', KBS2 '댄싱하이'가 그 주인공. Mnet은 앞서 '프로듀스48'이 종영한 뒤 곧바로 자사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의 새 시즌을 해당 시간대에 편성했다. 7일 '쇼미더머니 777'의 첫 방송 시청률은 1.0%. 앞서 동 시간대 방송했던 '프로듀스 48'의 첫 방송 시청률인 1.1%보다 높은 스코어로 출발을 알린 '쇼미더머니 777'은

방송 직후 시청률을 뛰어 넘는 화제성을 기록하며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쇼미더머니' 첫 방송에 쏟아진 뜨거운 반응은 앞으로 이어질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런가 하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떠난 SBS 11시 예능 블록은 새 예능 '쏟아져 막자'가 채웠다. 이경규, 김상중, 채림, 로꼬의 합류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쏟아져 막자'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 사라져가는 식재료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특히 '쏟아져 막자'는 첫 방송 게스트로 아이유를 내세우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쏟아져 막자'의 7일 첫 방송 시청률은 3.4%를 기록했다. 앞서 해당 시간대 방송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이제 갖 첫 방송을 마친 만큼 '쏟아져 막자'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동 시간대 첫 선을 보인 KBS2 '댄싱하이'는 2.1%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10대 댄서들의 배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댄싱하이'는 동 시간대 방송된 지 삼과 사 예능 가운데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다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성패에 대해 숙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프로그램들의 종영으로 '나 혼자 산다' 천하를 맞이하는 듯 했던 금요일 예능계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론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 속으로 다시금 빠져들었다. 과연 올 하반기 금요일 예능계를 평정할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흥미로운 혈전은 이미 시작했다.

'명당', 900만 '관상' 만큼 결과 낼까



3부작의 마지막인만큼 '명당'과 전작들과의 비교는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형인 것은 '명당'이 '관상'이 아닌 '궁합'의 뒤에 오는 작품이라는 점이 다르다. 2013년 개봉한 '관상'(한재림 감독)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해석을 가미한 매력적인 영화였다. 송강호와 김혜수, 이정재 등 톱스타가 포진한 화려한 캐스팅 뿐 아니라 '관상'이라는 친근하면서도 신비로운 소재가 관객들의 시선을 끌는 데 한 몫 했다. 그 결과 9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5년 만에 나온 후속작 '궁합'은 '관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새로이 아쉬움을 줬다. 이성과 심은경이라는 두 초춘 배우의 풋풋한 이야기가 흥미를 끌기는 했지만, 화려한 대작의 느낌이 강했던 '관상'에는 훨씬 못 미쳤다. 그 결과 134만명의 관객만이 이 영화를 찾았다. '궁합'의 그림자 때문인지, '명당'에 대해서는 관객들의 기대가 크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추석 개봉작 '빅4' 중에서도 예매율은 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베일을 벗은 '명당'은 '궁합'보다는 '관상'에 비견할만한 작품이다. 조승우와 지성 두 주인공의 연기가 중심을 잡아주고, 백윤식과 김성균 유재명 등 연기와 배우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캐스팅도 돋보인다. 의미적인 면에서도 시의성이 충분히 관객들의 공감을 살만하다. 오는 19일 개봉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음력 8월 4일)

<p>▶쥐 유혹에 넘어가면 순간 좋은 분이나 참으면 오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하면 딴 이성에 게 눈 돌리기 쉽다. 그런 짓은 내 복을 쫓아내는 격이다.</p>	<p>▶돼지 손리에 맞지 않는 일에 개입하면 승사에 휘둘린다. 소임을 다하고, 물질에 현혹되지 말라. 1, 3, 6월생은 변동보다 현재 위치에서 내실을 기하라. 쥐, 말, 닭과 함께할 때 길이 열린다.</p>	<p>▶원숭이 공 심은 곳에서는 팔이 나지 않는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 사, 비 성씨는 금전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한 번 어긋난 것을 제 위치에 갖다 놓기는 쉽지 않다.</p>
<p>▶사슴 빈 수레가 요란하듯 길만 화려할 뿐 실속은 없다. 남의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 사랑에는 길이 있다. 하지만 두 길을 욕심 내다가 목적지에 닿지도 못한다. 딱 한 길만 골라 거침없이 나아가라.</p>	<p>▶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남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정성껏 받라. 남서쪽으로 옮기면 미래에 큰 힘이 된다. 3, 5, 11월생 변동 수 있다.</p>	<p>▶닭 능력만 믿고 교만하게 굴지 말라. 나보다 훌륭한 실력자가 항상 내 자리를 노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함께 산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독해진다.</p>
<p>▶호랑이 이제까지 노력한 대가를 받는다. 하지만 가정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근면하고 성실해야 사업도, 가정도 길하다. 주식 투자하면 이익이 따르겠다.</p>	<p>▶말 매사 신중을 기하라. 재능만 믿고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관세가 생긴다. 잔치집에 가도 술에 취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짜증 내지 말라. 잘못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오늘은 북서쪽이 길하다.</p>	<p>▶개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 나를 낮춰보라. 명예가 드높아진다. 2, 8, 10월생은 건강에 유의하며 힘껏 일하라. 대성한다.</p>
<p>▶토끼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는 일이 손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고생하겠다. 이익에만 너무 목을 매지 말고 베푸는 후덕함도 보이라. 애정은 고독감과 쓸쓸함 탓에 올상이다. 미, 비, 표 성씨는 친구를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따르라.</p>	<p>▶양 직장에서 기본 좋은 날이다. 그 기본을 집까지 가져가라.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다. 하지만 10, 12월생이 라면 만나지 말라. 선물을 받으나 헤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음식을 조심하라. 건강을 해칠 수 있다.</p>	<p>▶돼지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 뱀, 용, 범, 비위를 맞추라 성질대로 하다가 후회한다. 투기를 삼가라. 1, 2, 3월생은 검은색을 피하라. 갈색과 빨간색이 힘이 된다.</p>